



Sol Nursing times

Sol-Times 14th Edition
 회장 김유빈 dbqls0506@naver.com
 기사부장 이호은 aness002@naver.com
 사진부장 고남의 skadm1103@naver.com
 발행부장 최은비 chldmsq189@naver.com
 총무 진윤정 yoonjung4665@naver.com

VOL.14 (01.01~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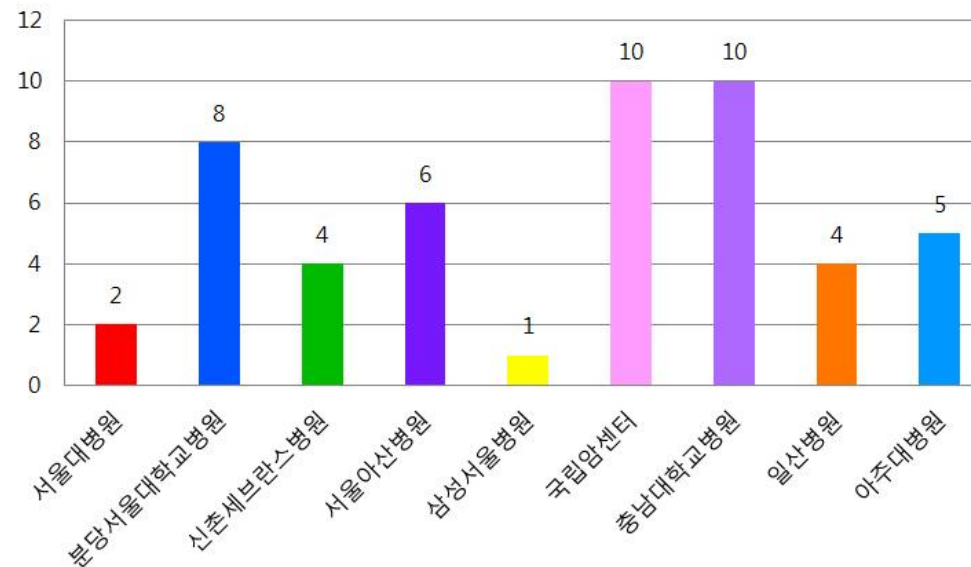
Published on 03.06 2017 Copyright © Sol-Times

2학년 동계 첫 임상실습

2017년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 학생간호사로서 겨울 임상실습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3~4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각각 대전보훈병원, 대전유지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웰니스병원 총 4개의 실습병원에서 실습을 수행하였다. 총 2주간 실시되는 이번 겨울학기 실습에서 그 동안 수업시간에 배운 기본간호학을 실제 임상에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실습을 마친 후 학생들은 "학과 최초로 2학년 겨울학기에 실습에 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임상에 적용해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남의 기자

2017년도 취업 현황



2017년 졸업예정자인 우송대학교 4학년 학생 81명 전원 모두 병원에 채용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 2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8명, 신촌세브란스병원 4명, 서울아산병원 6명, 삼성서울병원 1명, 국립암센터 10명, 충남대학교병원 10명 등 주요 기업 및 대학병원에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김유빈 기자

자료 출처 - 학과 사이트

제 5회 우송간호 학위수여식 개최




2017년 2월 17일 도서관 강당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위 행사엔 교수,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했다. 강창희 학과장은 "5기 학생들의 졸업과 100% 병원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씨와 의료인으로써의 사명감을 갖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간호의 뜻을 널리 전파하는 멋진 우송간호 졸업생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며 소감을 남겼다.

진윤정 기자


사진 출처-간호학과 과사무실





신학기 이벤트!

"우송간호" 하면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3분 뽑아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사진 보내는 곳: 카카오톡 아이디 BeBCNOF (최은비)



Sol-Challenge

간호학과 Sol-Challenge 팀이 미국 해외 연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Sol-Challenge 프로그램'은 김경아 교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정을 기획하고 실행 및 평가까지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전공별 글로벌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실시되었다.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선정 심사 후 채택된 여러 학과의 팀 중에 간호학과에서는 두 팀이 해외 연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간호학과 1학년 학생 권혜완, 이소현 학생으로 구성된 'Future CRNA(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는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미국의 뉴욕과 미시시피로 연수를 다녀왔다. 뉴욕에서 현지 문화 탐방뿐만 아니라 미국 적십자사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미시시피에서 마취 전문 간호사 협회의 연차 주주 총회에 참석하여 CRNA, SRNA(student registered nurse anesthetist)와 만나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혜완 학생은 "한국에서 마취 전문 간호사의 수는 매우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생소하기에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했는데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한편, 간호학과 2학년 학생 김수경, 김유라, 김유진, 조성원 학생으로 구성된 'UBUNTU'는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로 연수를 다녀왔다. 재외한인간호사회(OKNA)에 초청을 받아 3명의 한인 간호사와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간호사 직종의 실상 및 다양한 혜택과 단점들을 비교하고 미국 간호사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언을 받았다. 또한 강창희 학과장의 도움으로 '엔젤레스 대학'(Angeles College)과 연계를 맺어 학생들이 대학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엔젤레스 대학은 미국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NCLEX-RN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6개월 이상 미국에서 생활할 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곳에서 청강을 하고 대학 생활, 체계와 교과과정을 배웠다. 기타 시간에는 비버리 힐스와 할리우드를 방문하는 등 현지 문화를 탐방할 수 있었다. 2학년 김수경 학생은 "단순히 미국에서 간호사 직업을 종사하고 싶다는 모호한 개념에서 벗어나 미국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구체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렇듯 솔챌린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속담과 같이 직접 몸소 체험하였을 때 학생들이 설정한 목표들에서 현실성과 구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의현 기자

사진 출처 - 권혜완, 김수경

お会いできてうれしいです!

일본 해외연수 프로그램



2017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일본 오사카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대학 내 33명의 학생으로 그 중 간호학과 김단홍 외 4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현재 우송대학교와 자매 대학을 맺고 있는 학교, '오타니' 대학교와 간사이 대학교를 방문하였고 '오사카 성', '도톤보리', '나라공원', 등 일본의 명소를 방문했다. 김단홍 학생은 '우리나라와 닮으면서도 특색 있고 개성이 강한 문화의 성격에 매료되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이호은 기자

우송간호신문

도서관



도서관, 간호학과 학생들의 만남의 장소

